

석유화학 고부가가치 전환 유도

산자장관, 핵심 원천기술 개발 집중육성 ... 실물경제 활성화도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11월10일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물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장관은 전남대 여수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6회 석유화학산업 발전전략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는 중국, 중동 등 후발국의 추격으로 수출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질 좋은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여수석유화학공장 합동기공 30주년을 기념하고 석유화학산업의 제도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세균 장관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애로 해결로 기업의 투자활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을 하겠다”며 “우리나라가 지난 30여년간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의 석유화학산업 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출시장을 개척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 때문”이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산자부는 정세균 장관과 석유화학업계 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애로사항 등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고 신소재 등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육성해 석유화학산업의 생산구조가 고부가가치제품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10>